

● 송준석 교수 '마음의 숲을 거닐다' 출간

"우리 일상에는 행복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많은 행복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소확행의 즐거움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느리게 살더라도 여유 있게 즐기는 행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 '마음의 숲을 거닐다' 내용 중



책에 수록된 강다희 작가 작품 'precious moments' 중 일부

# 진정한 행복 찾아 떠나는 마음 여행

각자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에세이집이 출간됐다. 송준석 전남도립대 교수가 펴낸 '마음의 숲을 거닐다' (스타북스판)이다. 이 책은 송 교수의 네 번째 에세이집이다. 그는 성공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에세이 '오늘도 인생을 색칠한다'를 시작으로 사랑을 노래한 '기쁨의 속삭임', 잃어버린 희망을 찾고자 하는 '우리들의 잃어버린 선물'에 이어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행복을 주제로 한 이 책을 펴냈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됐다. 조건화된 객관적인 현상지표에 따르기보다는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에 대해 자연스럽게 풀어내고 있다.

송 교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자아 존중감이 행복의 큰 요인 중 하나이며,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꿔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 '행복' 소재로 그린

### 10인화가 작품 수록

### 소소한 일상서 만끽하는

### 위로와 감사 선사



◀서지영작 'The secret Garden'

◀안태영작 '할머니가 주신 왕사탕'

그는 "편견과 아집에 빠지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신뢰하는 건전한 상호존중의 관계 속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며 "불행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 자기 주체적 주인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상 속 소소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단지 나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감사하면 행복이 싹트기 시작한다.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

다"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목마를 때 마시는 한 잔의 물이 감동을 주듯이 우리 일상 속 행복이 도처에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책 속에는 보기만 해도 위로를 선사하는 지역화가 10명의 따뜻한 작품들이 글과 함께 수록돼 있어 독서의 즐거움을 배로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박구환·최순안·강다희·주라영·서지영·안태영·김영일·천영록·성유진·이시영 작가의 작품이 송 교수의 글과 어울려 독자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선사한다.

마지막으로 송 교수는 "살아온 나날의 삶 속에서 겪은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행복'을 추구할 때 식으로 성찰해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반드시 첫 페이지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며 "행복은 개인차가 없고 분명한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관념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느끼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 ▲풍수전쟁-김진명 저자

어느 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의문의 메시지가 전달된다.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은하수는 메시지를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지만, 실마리조차 잡지 않는다. 각 분야 전문가들조차 해답을 내놓지 못하자 은하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을 읽겠다고 독서로 몰두했던 대학 동기 형연을 떠올린다. 메시지 의미를 추적하던 중 형연은 단서를 찾기 위해 은하수를 무당집으로 데려간다. 은하수는 중요한 문제를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형연에게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형연이 제시한 근거는 두 사람을 해답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 /이타복스·1만6천800원



### ▲원시별-손석준 저자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앞두고 출간된 '원시별'은 전쟁 한복판에 놓인 세 청년을 통해 어둠 속에 갇힌 꿈이 어떻게 밤을 뚫고 빛을 이어가는지 처연하게 그려낸다. 서투른 꿈과 갖 파우키 시작한 사랑은 전쟁의 격랑 속으로 파묻혀 있던 인물들은 이제 스물여덟의 청년들이었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서사는 인간의 의지와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은 역사의 파도를 효과적으로 담아낸다. 그러나 그 파도 속 세 명의 청년은 어둠 아래로 사라지면서도 결국에는 작은 빛 하나를 피운다. 작가는 언제나 삶은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듯하다. /철수와영희·1만7천원



### ▲땅의 역사-박종인 저자

사라질 뻔한 역사 속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이 땅이 들려주는 생생한 증언들이 펼쳐진다. 총 4장으로 구성된 '땅의 역사'는 조선 전기부터 후기, 개화기, 식민시대와 근대까지를 폭넓게 아우르며 전국에 흩어진 흔적들을 시기별로 조망한다. 주제는 '흔적'이다. '보잘것없던 있어야 할'이라는 부제와 더불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을지 모를 건축물이나 비석에 담긴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리즈에서 본문 내에 수록했던 1차 사료 출처 등을 책의 마지막에 스페셜 페이지로 구성했다. /상상출판·1만7천500원



### ▲완벽한 계란 후라이 주제요=보람 글·그림

이 책은 '완벽한 계란 후라이'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여러 친구들의 생각과 고민을 담은 그림책이다. 엄청나게 커다란 후라이, 아주 작은 후라이, 완전히 익힌 후라이, 덜 익은 후라이 등 '완벽함'에 대한 모두의 생각과 기준은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욱 완벽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람 작가만이 표현할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완벽함에 관한' 기발한 상상력에, 아주 작은 개미부터 다람쥐, 토끼, 고양이, 아이, 그리고 커다란 호랑이까지 매력덩어리 귀여운 캐릭터들이 함께한다. /길벗어린이·1만5천원

# '기후위기 시대' 자연과의 공생을 꿈꾸다

## 김영선 생태학자 '굿바이 남도꽃' 출간...멸종위기 70여종 정리

기후위기 시대, 우리와 함께 해온 다양한 식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김영선 생태학자가 펴낸 '굿바이 남도꽃' (상상창작소북판)이다. 남도에 있는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사라져가는 꽃 70여종을 정리한 책이다. 4계절에 맞춰 피는 멸종위기 식물과 꽃, 그리고 각 국립공원에 자생하는 고유종 등이 소개돼 있다.

책은 2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4계절에 맞춰 피는 멸종위기 식물과 꽃을 정리했다. 2부는 지리산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 월출산국립공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자생하는 남도꽃과 고유종 등을 각 장에 나눠 담아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남도꽃에 다시 한번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 조심스레 전망한다.



고, 보이면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함께해 온 다양한 식물들의 터전이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이 책을

통해 기후위기시대, 자연과 공존을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굿바이 남도꽃' 출판기념회도 열린다.

김영선 저자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 생태 위기에 직면한 남도의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저자 김영선은 지역에서 오랜기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하며 장륙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이끌어낸 생태학자다. 저서로는 '생물다양성&광주습지', '유럽에서 도시 지속가능성을 보다', '바람소리, 숲길에 머물다' 등이 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